

## 박경리 <토지>에 나타나는 생태학적 특성 연구

- 문화적 에코페미니즘을 중심으로

이 미 화\*

### 차 례

- |                             |                       |
|-----------------------------|-----------------------|
| I. 들어가며                     | IV. 공동체적 치유와 식민지의 어머니 |
| II. 이원론 비판과 식민지의 딸          | V. 나오며                |
| III. 자연·여성의 배경화 경계와 식민지의 아내 |                       |

### 국문초록

박경리 <토지>는 반자연적인 인성, 반자연적인 환경에 대해 비판한다. 일본 제국주의 문화는 생명을 파괴하는 칼의 문화이기에 비판하고, 조선의 문화는 창조에 그 힘을 살린 생명지향적인 문화이기에 옹호한다. 이런 생태의식은 <토지>에서 조선의 자연과 여성을 능동적·주체적으로 그리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리하여 <토지>는 유기체적 세계관을 중시하고, 관계적 자아를 지향하며, 자연과 여성의 배경화를 경계하는 작품이 된다. 한마디로 자연과 문화를 이분하지 않은 작품인 것이다. 즉 <토지>에 나타나는 생명주의는 문화적 에코페미니즘 특성을 지닌 것이

\* 부산대학교 강사

다. 본고는 이를 밝히기 위해 조선여성의 성역할과 관련한 생명주의를 고찰하였다.

주제어 : 박경리, <토지>, 에코페미니즘, 문화, 유기체적 세계관, 관계적 자아, 생태적 상상력.

## I. 들어가며

박경리(1926.10.28~2008.5.5)는 생전의 마지막 기고문에서도 ‘물질의 위험한 힘’이란 제목으로 생명이나 정신적 가치 대신 물질주의가 만연하는 사회에 대해 경고와 비판을 가하였다.<sup>1)</sup> 그만큼 생명주의는 일생동안 추구한 박경리 사상의 핵심이었다. 물론 박경리의 작품을 분석한 많은 연구들<sup>2)</sup>도 생명주의를 그녀 문학의 가장 큰 특징으로 꼽았다. 이중 <토지> 완간 이후에 이루어진 생명주의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영민<sup>3)</sup>은 박경리의 문학관을 인간과 삶에 대한 탐구라고 본다. 그래서 박경리의 글 쓰기에는 작은 생명 하나하나가 모여 큰 생명체를 이루는 조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에 대한 깊은 소망이 담겨 있다고 분석한다. 심원섭<sup>4)</sup>은 박경리의 생활이 보여주는 지속적인 방향성, 신변적인 윤리, 쉽게 논리화

1) <중앙일보> 2008. 5. 24.

2) <토지>가 처음 간행되기 시작한 1970년대에는 이 작품이 과연 어떤 소설인가에 대한 규정(역사소설, 농민소설, 총괄체소설, 가족사소설, 민족사소설, 총체소설)이 연구의 중심을 이루었다. 그러다 작품의 전체적인 윤곽이 드러나던 1980년대에는 리얼리즘에 의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토지>가 보여주는 일제하 조선인의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에 주목한 것이다. 작품이 완결되어가던 1990년대에는 다양한 인물들을 통해 민족, 한, 사랑, 일본비판, 생명사상을 포괄하여 보여주기에 『토지』의 주제는 한, 생명사상, 삶에 대한 진정성의 문제라고 정리되어졌다. 최유찬 외, 『토지』의 문화지형학』, 소명출판, 2004, 91-125쪽.

3) 김영민, 『박경리의 문학관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6, 한국문학연구학회, 1996.

4) 심원섭, 『박경리의 생명 사상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6, 한국문학연구학회, 1996.

될 수 없는 정서 구조까지 고찰하여, 이를 작가의 원주행과 관련하여 분석한다. 그 결과 박경리 사상은 생명주의가 핵심임을 밝혀낸다.

조윤아<sup>5)</sup>는 <토지> 전체의 생명사상이 어떤 변모과정을 거치는지를 고찰한다. 그 결과 박경리의 사상적 전환은 영성불멸의식에 따라 변모하였음을 밝혀낸다. 홍순이<sup>6)</sup>는 <토지>의 생명사상을 주역의 음향오행설과 성리학에 연원을 둔 생극론과 관계한다고 분석한다. 박혜원<sup>7)</sup>은 등장인물의 서술양상을 분석하여, <토지>가 창조적 생명미학과 반생명론에 따라 선악이 나누어지고 있음을 밝혀낸다. 장미영<sup>8)</sup>은 갈등을 중심으로 박경리 전체 소설의 주제를 파악하려 했고, 그 결과 작가는 <토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생명존엄성을 심도 있게 그려내고 있다고 분석해 낸다. 김현숙<sup>9)</sup>은 <토지>의 생명과 죽음에 주목하였다. 그리하여 박경리의 지향점은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자연회복이라는 점을 도출해낸다. 김은경<sup>10)</sup>은 <토지>에서 등장인물들의 가치판단을 분석한다. 그 결과 생명주의와 반-생명주의가 길항관계로 나타남을 밝혀낸다. 이상진<sup>11)</sup>은 <토지>에서 자유와 생명, 화해의 공간으로 지리산이 나타나고 있음을 고찰하였다.

윤남희<sup>12)</sup>는 <토지>의 생명주의가 여성성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생

- 
- 5) 조윤아, 『박경리『토지』의 생명사상적 변모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 6) 홍순이, 『박경리의『토지』연구- 존재론적 생극론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7) 박혜원, 『박경리『토지』의 인물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 8) 장미영, 『박경리 소설 연구- 갈등 양상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 9) 김현숙, 『박경리 작품에 나타난 죽음과 생명의 관계』, 『현대소설연구』17, 한국현대소설학회, 2002.
  - 10) 김은경, 『박경리 문학 연구- '가치'의 문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 11) 이상진, 『자유와 생명의 공간, 『토지』의 지리산』, 『현대소설연구』37, 한국현대소설학회, 2008.
  - 12) 윤남희, 『박경리 『토지』연구- 여성성 및 '일체'사상을 중심으로』, 배재대학교 박

명, 존중, 포용, 공존과 그 궤를 같이 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소우주인 인간과 인간의 합일 양상은 인간과 자연의 합일로 확대되면서 결국에는 인간과 자연이 일체의 상태에까지 도달하고자 하는 욕망이라고 본 것이다. 이 논문은 본고가 살피고자 하는 에코페미니즘 시각이 포함되어 있어 주목된다. 본고도 <토지>의 생명주의가 여성성의 본질을 깊이 수렴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를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남희의 연구는 본고와 큰 차이점을 지닌다. 윤남희는 미르치아 엘리아데, 에리히 프롬, 에코페미니즘, 동양철학의 음양오행사상과 공통되는 ‘일체’에 집중하였다. 그러다 보니 남녀의 사랑에 중점을 둔 사랑서사를 통해 일체를 탐색하게 된다. 그 결과 작가가 궁극적으로 지향하고자 했던 주제는 인간의 성정체성 회복과 우주만물의 일체에 대한 회구라는 점을 밝혀내게 된다. 즉 윤남희의 연구는 에코페미니즘 관점이 <토지>를 분석하는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소개하는 것에서 그치고 있다. 본고처럼 에코페미니즘 특성을 밝힌 연구가 아닌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점돌<sup>13)</sup>은 『토지』의 생명사상이 동학의 평등사상과 관련한다는 점을 밝혀낸다.

위의 연구들을 정리하면 <토지>의 생명주의는 첫째, 박경리 전체 작품이 가진 공통적인 특징이라는 점이다. 둘째, 작가의 생명사상이 <토지>까지 이어져오면서 겪은 변화에 주목하였다는 점이다. 이런 연구경향은 뒤집어 말하면 박경리의 생명주의가 지닌 생태학적 특성을 밝히려는 세부적인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에 본고는 <토지>의 생명주의가 어떤 생태학적 특성을 가지는지에 주목하였다. 이 점을 밝히기 위해 본고는 생태학 중에서도 에코페미니즘 관점에서 분석하려 한다. 왜냐하면 <토지>는 모든 생명체가 조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기를 바란다는 점이, 자연회복을 희망한다는 점이 여성성과 관련되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토지>는 폭력과 죽음으로 물든 일

사학위논문, 2012.

13) 한점돌, 『박경리 『토지』의 문학사상 연구- 『토지』와 동학사상의 관련 양상』, 『현대문학이론연구』55, 현대문학이론학회, 2013.

본 제국주의에 대한 조선여성들의 저항이 중심서사로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다.

에코페미니즘은 생태주의와 여성주의가 합쳐진 사상으로, 양성차별과 생태파괴 현상은 서구에서 나타난 이원론에서 비롯된 사회모순이라고 본다. 그래서 가부장제 문화에서 말하는 진보를 거부하고 그 동안 평가절하되었던 여성의 기르고 양육하는 가치를 복원한다. 여신 숭배, 가이아, 몸, 자연적 주기, 모든 것의 상호관련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여성적 가치가 살아날 때 여성의 해방과 동시에 자연의 해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sup>14)</sup> 물론 여성이나 환경에 국한하지 않고 지역적·전지구적으로 정치·경제·문화와 관련된 젠더 관계들에 관심을 갖는다. 즉 에코페미니즘은 남녀 모두에게 관심을 쏟는 이론이다.<sup>15)</sup> 특히 제국주의자가 일으킨 전쟁의 주된 희생자는 여성·어린이·자연이었기에, 땅을 어머니로 그리고 사람을 땅의 주인이 아닌 땅의 자손으로 보는 자연에 대한 접근<sup>16)</sup>법은 식민지 조선을 배경으로 한 <토지>의 생명사상을 분석하는데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박경리의 생명사상을 연구한 논문, 혹은 페미니즘<sup>17)</sup>을 연구한 논문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14) 김재희 역음, 『깨어나는 여신』, 정신세계사, 2000, 185쪽.

15) 마리아 미스·반다나 시바, 손덕수·이난아 옮김, 『에코페미니즘』, 창비, 2008, 5-6쪽.

16) 위의 책, 117쪽.

17) 이태동, 『여성작가 소설에 나타난 여성성 탐구- 박경리, 박완서 그리고 오정희의 경우』, 『한국문학연구』19,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1997. 백지연, 『박경리의 『토지』- 근대체험의 이중성과 여성 주체의 신화』, 『역사비평』43, 역사문제연구소, 1998. 최유찬 편저, 이상진 『여성의 존엄과 소외, 그리고 사랑』, 『박경리』, 새미, 1998. 이인복, 『박경리 문학 연구』, 『지역학논집』5, 숙명여자대학교 지역학연구소, 2001. 오세은, 『여성 가족사 소설의 의례와 연대성- 『토지』, 『미망』, 『혼불』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7, 한국여성문학학회, 2002. 김명준, 『경계선과 깨뜨림의 미학- 『토지』의 최씨가문 여성 삼대를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21, 우리문학연구회, 2007. 김은경, 『박경리 문학에 나타난 지식인 여성상 고찰』, 『여성문학연구』20, 한국여성문학학회, 2008. 오혜진, 『전근대와 근대의 교차적 여성상에 관해- 박경리의 『김약국의 딸들』 『시장과 전장』 『토지』를 중심

를 에코페미니즘으로 다시 살피는 작업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토지>가 ‘문화적 에코페미니즘’<sup>18)</sup> 특성을 지닌 작품임을 밝히는 것에 연구목적을 둔다.

## II. 이원론 비판과 식민지의 딸

<토지><sup>19)</sup>는 1897년부터 1945년까지를 시대적 배경으로 한 5부작 대

으로, 『국제어문』47, 국제어문학회, 2009 등

- 18) 에코페미니즘은 급진적/문화적/영성적 에코페미니즘과 사회적/사회주의적 에코페미니즘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에서 문화적 에코페미니즘은 여성과 자연간의 유대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이론이다.(김임미, 『에코페미니즘의 논리와 문학적 상상력』,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82쪽) 그래서 너무나 기꺼이 여성을 단순한 육체로 환원시키거나 아니면 여성의 잠재력이나 능력을 추측컨대 그들의 ‘돌보는 자연’과 연합된 것들로 제한시키려는 성향이 발견된다고 비판받는다.(이소영·정정호·강규한·김경한 편역, 『자연, 여성, 환경- 에코페미니즘의 이론과 실제』, 한신문화사, 2000, 48쪽) 이런 의미에서 ‘자연 또는 문화’ 에코페미니즘이라고 불리기도 했다.(최인숙, 『에코페미니즘의 철학적 배경과 노자철학의 상관관계 연구』,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21쪽) 하지만 생계 노동을 담당하는 여성의 경험은 명백하게 남성의 경험과는 다른 것이고, 자연에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여성들의 경험은 역사적으로 자연에 대한 이해에 더 가깝게 있다. 이렇게 젠더적으로 보면 문화적 에코페미니즘에 붙는 본질주의의 혐의를 받지 않게 된다.(김임미, 앞의 논문, 87쪽) 특히 식민통치 기간의 진보는 자연으로부터 멀어짐을 뜻했기에 비판받아 마땅하다.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를 바탕으로 하는 이 해방 개념(진보)은 근대남성이라 해도 여성에게서 태어나며 땅에서 난 음식을 먹고 또 장차 죽으리라는 사실을, 나아가 자연의 공생관계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만 살아 있을 수 있고 건강할 수 있으며 성취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무시한다.(마리아 미스·반다나 시바, 위의 책, 198쪽) 즉 자연을 파괴하는 문화는 곧 여성을 억압하는 문화인 것이다.(김재희 엮음, 앞의 책, 185쪽) 따라서 본고의 ‘문화적 에코페미니즘’은 일본 제국주의의 문화(문명과 진보) 논리에 저항하는 식민지 조선 여성들의 젠더적 삶이 어떻게 자연과 여성억압을 극복하려 했는지를 살펴보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 19) 박경리, 『토지』전2권, 나남출판사, 2005를 텍스트로 삼는다. 이후부터는 <토지> 몇 권 몇 쪽으로 간략히 기술하겠다.

하소설이다. 특히 5부는 조선여성농민의 고단한 삶이 집중적으로 그려져 있다. 이는 제국주의(일본)가 식민지(조선)의 여성을 벼랑으로 몰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석이네의 실명’<sup>20)</sup>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토지>는 식민지의 여성(인간)과 자연이 함께 억압받는 양상을 그려낸다. 특히 <토지>는 일본이 “물질 문명의 선진국”(4권 63쪽)으로 불리게 되면서부터 조선의 비극이 급속도로 진행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즉 <토지>는 제국주의 문화 논리에 맞서는 조선 여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때 조선 여성들은 공통적으로 “자연을 읽는 법”<sup>21)</sup>에 따라 살아가는 서사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토지>에 나타나는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이 생태학적 관점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유인실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유인실은 “작가의 말을 생경하게 대변하는 목소리”<sup>22)</sup>로 분석될 만큼 <토지>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여성이다. 이 유인실이 ‘소나무’에 비유되고 있다. <토지>에서는 “암벽 사이에서 비틀어지고 구부러져서 견디는 소나무, 그것은 바로 식민지 조선”(14권 73쪽)이라고 서술한다. 물론 일본도 소나무에 비유된다.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 조선은 구부러진 소나무에 비유된 반면 일본은 곧게 뻗은 소나무에 비유된 차이가 있는 정도이다. 즉 유인실도 조선도 일본도 소나무에 비유된 것이다. 이는 <토지>가 우리는 모두 살아 있는 전체에 속하는 ‘똑같은 생명’이라는

20) 석이네는 <토지>1-5부 전체에 등장하는 여성이다. 그녀는 평생을 ‘석이네’ 혹은 ‘성환 할머니’로 불렸다. 중요한 것은 석이네처럼 자신의 이름조차 가지지 못했던 조선여성농민들은 일제말기까지 거의 살아남지 못했다는 점이다. 야무네, 천 일네, 석이네 세 사람이 겨우 생존했다. 이중 석이네는 특히나 온 가족(남편, 아들, 손녀)이 일본 제국주의에 희생되고 있다. 그래서 “모두 힘들게 살아왔고 비극적 삶을 끝낸 사람들도 많지만 어찌하여 그다지도 불행의 여신은 석이네 식구들에게 달라붙어 떨어질 줄 모르는가.”(『토지』21권 304쪽)라고 서술된다. 이런 석이네가 작은 희망조차 버렸을 때 ‘실명’되고 있다. 석이네가 실명된 5부는 조선강토가 피폐할 대로 피폐해져 초근목피마저도 없어진 환경이었다.

21) 김재희 엮음, 앞의 책, 20쪽.

22) 박혜원, 앞의 논문, 105쪽.

생태의식을 담고 있음을 알게 해준다.

이런 유인실이 사랑을 할 때는 민족간의 경계가 분명한 시기였다. 조선여성(유인실)이 일본남성(오가다)을 사랑하는 것은 상상조차 해선 안 되는 일이었던 것이다.<sup>23)</sup> 그래서 정신적 사랑만을 했을 때에도 “매춘부보다 더러운 여자”라고 유인실은 스스로 생각했다. 하지만 유인실은 오가다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의 아들 쇼지를 낳는 과격을 행한다. 반면 유인실은 오가다의 아내도 쇼지의 어머니도 되지 않는다. 오가다와 결혼하지도 않고 쇼지를 키우지도 않는 것이다. 즉 유인실은 우여곡절을 겪지만 식민지의 딸로서 살아가는 길을 최종적으로 선택한 것이다. 그녀가 식민지 딸로서의 삶을 선택하는 이런 서사는 처음부터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볼 수 있겠다. 왜냐하면 유인실이 비유된 소나무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소나무는 “끈질긴 생명력”을 상징하는 식물이다. 그런 관점에서 <토지>는 구부러진 소나무가 “풍치가 훨씬 좋”다고 서술하였다. 이는 작가가 안전한 곳에서 풍파없이 잘 자라난 생명체보다는, 고난을 겪었으면서도 곳곳이 버터내는 생명체를 더욱 사랑했음을 반영한 것이다. 즉 유인실은 철두철미한 민족의식을 지닌 여성으로서, 누구보다도 깊은 시련과 고난을 겪었던 것이다. 그래서 유인실이 식민지의 딸로서 살아가겠다는 선택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바로 ‘생명을 지향하는 민족으로 남겠다는 의미라고 판단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근거는 일본의 문화와 조선의 문화를 대립적으로 생각하는 ‘유인실의 생태의식’과 관계한다.

가) “조선은 유교, 그러니까 칼로써 인민을 다스리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서양의 기사나 일본의 무사에서 연상되는 것은 신라의 화랑인데 어찌해서 무예를 닦는 소년들에게 꽃 화자의 이름을 붙였는가,

23) 조선인에게 일본인은 “본능적인 거부 반응만이 아우성”치는 “이민족, 정복자, 거대한 발바닥으로 강산을 깡그리 밟아 뚫개는 괴물”(『토지』12권 378쪽)이었다. 유인실도 이 같은 민족의식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남모(南毛)와 준정(俊貞)이라는 아름다운 아가씨를 화랑의 우두머리로 했는가…… 죽이는 것을 피하고 싶었다, 가능하다면, 글썽요. 모르겠어요. 다만 막연하게 그 세계를 알 것도 같고…… 칼로써 힘을 빼고 황폐해진 정신으로, 파괴가 있을 뿐 창조는 없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즐겨 말하는 조선의 사대주의 그게 진실이라면 고유하고 독특한 문화는 있을 수가 없지요."<sup>24)</sup>

나) 조선의 예술은 생명이 내포된 힘의 예술이에요. 전 조선인을 예술적인 천재로서 선택받았다. 따위의 비현실적인 애길 하는 게 아니에요. 칼로써 힘을 빼는데 무한한 힘이 소요되는 창조에 바칠 힘이 있겠느냐, 일본의 문화적 빈곤은 바로 거기에 이유가 있고 칼을 삼가며 치지 않고 내 나라를 지키는 데 그친 조선은 당연히 창조에 그 힘을 살렸다. 전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비애가 아닌 생명의 힘, 그 예를 들어보겠어요.<sup>25)</sup>

가)와 나)는 유인실이 두 나라의 문화를 판단하는 기준이 '창조적 생명'임을 알게 해준다. 그만큼 유인실은 '자연을 읽는 법'에 따라 가치판단 하는 인물이었던 것이다. 박경리는 일본 제국주의 "문화의 특징을 예로, 그로, 난센스"<sup>26)</sup>로 정리할 수 있다고 말하여 왔다. 일본 제국주의 "문화의 본질"을 "성과 칼과 무사상"이라고 말하여 왔던 것이다. 그래서 일본의 문화는 "죽음과 폭력이지 결코 삶과 생명이 아"<sup>27)</sup>니라고 보았다. 유인실은 바로 이런 작가의 생태학적 세계관이 반영된 인물이다. 달리 말하면, 유인실의 서사는 인간과 자연을 칼로써 다스리고 지배하려는 '반생명주의' 이원론에 대한 작가적 비판을 알 수 있게 한다. 그와 동시에 <토지>에 나타나는 "반일의식이 반일본인이 아님"<sup>28)</sup>도 알 수 있게 한다. 그렇게 <토지>는 일본 문화가 지닌 "반자연적 인성, 반자연적 환

24) 『토지』 11권 287-288쪽.

25) 『토지』 15권 127쪽.

26) 박경리, 『가설을 위한 망상-박경리 신원주통신』, 나남, 2007, 60-61쪽.

27) 위의 책, 332-333쪽.

28) 박경리, 『생명의 아픔』, 이룸, 2004, 36쪽.

경”<sup>29)</sup>을 비판하는 서사인 것이다.

찬하는 지금 자기집 뜰에 한창인 수국(水菊) 생각을 하고 있었다. 축축한 음지에서 흐드러지게 핀 수국, 병자 방에는 꽃지 않는다는 그 수국이 녹색으로 변했을 때, 찬하는 히비야 공원에서 녹색의 여인으로 착각한 인실의 모습을 연상했던 것이다.<sup>30)</sup>

“녹색의 여인”으로 명명되는 유인실이 가야할 길은 반생명주의가 펼치는 억압에 굴하지 않는 조선독립운동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정리하자면, 소나무에 비유된 유인실은 <토지>가 여성과 자연을 운명공동체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그리고 이원론에 따라 자연과 문화를 구별한 일본 제국주의는 반생명주의가 될 수밖에 없으며, 이런 억압에는 자연의 창조적 생명력·저항력의 회복만이 해결책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유인실은 일본 제국주의 문화 논리(이원론)를 정면에서 비판하는 생명지향적인 조선의 딸을 보여준다 할 것이다.

### Ⅲ. 자연·여성의 배경화 경계와 식민지의 아내

에코페미니즘은 “자연의 배경화·도구화와 여성의 배경화·도구화는 긴밀한 상동관계를 갖는다”<sup>31)</sup>고 본다. 그래서 “자연의 의지력을 인정하는 의지적 관점”<sup>32)</sup> 아래에서 자신의 “신체와 삶에 대한 자율성”을 요구하는 여성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 중에서도 “자연 본래의 생명성 회복을 탐색”<sup>33)</sup>하는 여성이라면 반드시 살필 필요가 있겠다. <토지>에서

29) 박경리, 『만리장성의 나라』, 동광출판사, 1990, 89쪽.

30) 『토지』 15권 294쪽.

31) 이소영·정정호·강규한·김경한 편역, 앞의 책, 113쪽.

32) 이귀우, 『생태담론과 에코페미니즘』, 『새한영어영문학』43, 새한영어영문학회, 2001, 47쪽.

는 임명희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임명희에 주목하여 <토지>의 생태학적 특성을 살펴보려 한다.

“『토지』의 생명관은 명희의 깨달음으로 해명된다”<sup>34)</sup>고 분석될 만큼 임명희는 <토지>에서 생태적으로 중요한 서사를 갖는다. 그녀의 서사는 결혼과 관련되어 생명주의로 나아가고 있다. 그녀의 남편인 조용하는 제국으로부터 유일하게 귀족의 작위를 하사받은 집안의 실세였다. 게다가 이미 유부남이었던 조용하는 임명희를 갖고 싶은 욕심에서 첫 아내를 가차없이 버린다. 권력과 재력을 가졌으며 가부장의식이 철저했던 조용하에게는 못할 일이 없었던 것이다. 그렇게 조용하는 두 번째 아내로 임명희를 맞는다. 그런 조용하에게 시집간 임명희는 가부장제 질서를 지켜왔던 여성이었다. 그래서 자신을 반기지 않는 시댁에도 맞춰 살았으며, 남편이 원하는 대로 조용하고 기품 있게 그 집안의 가구처럼 살아왔었다. 임명희는 가구와 같이 ‘배경화’된 “고풍의 여자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런 임명희가 조용하에게 ‘먼저’ 이혼을 요구하게 된다. 이는 임명희가 여성의 자율성을 추구하기 시작한 것을 의미한다. 여성 스스로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을 하겠다는 의지표명이기 때문이다. 임명희의 이혼 결정은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즉 임명희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되찾고, 배경화를 타파하려 한 것이다. 그 계기가 아래와 같이 자연의 생명성 회복과 관련되기에 더욱 주목된다.

가) 조용하하고 결혼을 생각한다. 얼레설레 아차! 하는 사이에 이루어졌던 결혼. 그가 귀족이 아니었고 자산가가 아니었고 교육받은 신사가 아니었고, 그랬다면 과연 결혼이 이루어졌을지 그것은 의문이다. 차디찬 눈빛과 창백해 보이는 지적인 용모에 명희 마음이 조금은 끌렸던 것을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다. 쾌적한 곳에서 풍파 없이 자신을 달래가며 살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니었을 것이다. 그때 상황은

33) 장미영, 앞의 논문, 121쪽.

34) 홍순이, 앞의 논문, 84쪽.

꽃과 관계가 없고 저 푸른 하늘과도 관계가 없고 음악회, 그 분위기와 관계가 있었는지 모른다. 고급 레스토랑의 하얗게 풀먹인 식탁보와 관계가 있었는지 모른다. 아아 하며 명희는 자기 자신에 대한 수치 때문에 비로소 입술을 깨문다.<sup>35)</sup>

나) 자연과 생명은 더없이 사랑스럽고 충실한 것같이 보였다. 싱그러운 푸르름, 문득 명희는 자신의 모습이 박제(剝製)한 한 마리의 학(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하필이면 많은 새 중에 학이라니. 옛날에 부친이 생존해 있을 때 어떤 관상쟁이가 명희를 보고 학상(鶴相)이라 말한 일이 있다. 귀하게 되겠으나 외로운 상호라는 것이었다. (중략) 남편에 불만이 있어서 명희는 자신을 박제품 학 같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다. 자신이 소유한 신체와 영혼 그 자체를 두고 (중략) 명희는 모종을 옮겨 심은 꽃밭 생각을 한다. 사철 정원사가 가꾸는 넓은 시집의 정원을 바라보는데 어찌 흙 냄새를 맡은 것 같은 기억이 없었는지.<sup>36)</sup>

가)는 일본 제국주의가 퍼뜨린 문명과 진보라는 문화의식에 따라 결혼을 결정했음을 깨닫고 ‘수치’심을 느끼는 임명희를 보여준다.<sup>37)</sup> 그녀가 결혼한 이유는 ‘음악회’ ‘고급 레스토랑’ 같은 문화생활을 선망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문화생활은 ‘꽃’ ‘푸른 하늘’보다 우위에 있을 것이라는 반생명주의 이원론이 무의식화 된 결과였던 것이다. 그래서 자신이 잃어

35) 『토지』 14권 50-51쪽.

36) 『토지』 10권 417-433쪽.

37) 임명희의 무의식은 <토지>에서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을 지배하는 이유로 주입한 정당성과 일치한다. 일본 제국주의자는 “방안에 요강을 들여놓고 긴 담뱃대 물고서 팔자걸음으로 걷는 너희들 조선인은 도시 위생 관념이 없고 게으르다. 그같은 민족성과 문명에 동떨어진 미개한 상태에서 백년이 걸려도 안 될 발전을 우리 대일본제국이 실현시킨 것이다.”(『토지』13권 115쪽)라고 주입시켜왔었다. 그리하여 “양과점을 위시하여 담배 가게, 이발소, 목욕탕, 대개 그런 비슷한 업종은 일본인 경영”이었으며 “식민지 백성들의 하층구조에까지 스며들어 일상화되어 가고 있었”다. 물론 이런 결과는 “수천 년 내려온 조선의 문화를 길바닥에 내다버려야 땅을 찾”는다는 친일파, 일본 앞잡이, 동경유학생에 의해 이루어졌다. 즉 조선의 “국토와 주권을 빼앗은 왜놈들은 우리의 문화를 빼앗”으려고 문화를 ‘문명과 진보’라는 우월의식으로 주입했던 것이다.

버린 자연 본래의 생명성을 회복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된 임명희다. 그녀의 이런 깨달음은 나)와 같이 새(학)와 관련하여 이루어진다. <토지>에서 작가는 “외로운 새” “날개 찢긴 새”에 조선민중을 비유하여 식민지로 전락한 조선인의 고통을 형상화하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작가의 조선에 대한 사랑이 표현되었다. 그런데 임명희는 새 중에서도 생명과 자유가 없는 ‘박제된 학’에 비유되며, 이런 특징은 ‘정원’과 그 의미를 같이하며, 의미확대 된다. 즉 박제된 학, 정원은 ‘자연에 인공적인 힘’이 행사되는 ‘모든’ 것을 부정한다는 의미로 읽히기에 충분한 것이다. 그렇게 임명희는 생명성을 잃어버린 자신처럼, 모든 인공적인 것은 타파해야 할 대상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지저귀는 새 & 박제된 학’, ‘꽃밭 & 정원’의 대조를 통해, 인간이 추구해야 할 가치란 ‘자연, 그 자체의 생명’임을 보여주게 된 것이다. 이처럼 자연의 생명성을 찬미하는 임명희였기에 배경화된 자신을 타파하려 했고, 이혼을 감행한 것이다. 이 같은 임명희에게서 가장 주목되어야 할 것은 아래와 같이 “창조의 능력”을 열망한다는 점이다.

명희는 창조의 능력이란 말에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좁은 뜻에서의 예술을 두고 그 말을 너꼴던 것은 아니었다. 명희에게 그것은 엄청나게 큰, 우주와 개미까지 합친 의미를 가진 것이었다. 우주와 미물이 모두 창조에 동참하고 있다는 깨달음이었던 것이다. 그 깨달음은 희망이기보다 더욱더 큰 절망, 절망이 어떤 것인가를 뚜렷하게 명희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나는 무엇을 하였다. 배추 한 포기 깨끗이 씻어 기쁜 마음으로 김치를 담가 내 가족을 즐겁게 하여 생명이 싱싱한 나무같이 뻗어나게 . . . 그렇게 한 일이 한번이나 있었는가? 겨울 삭풍에 손끝이 시리지 않게 장갑 한 켤레 만든 일이 있었나? 즐거운 마음으로, 혹은 즐거워하게끔 고통스럽게 일을 한 일이 있었나? 게으르지는 않았지만 나는 즐겁게 일한 일이 없고 고통스럽게 일한 일도 없다. 고양이도 새끼를 낳아 그 생명을 자라게 하고 닭도 병아리를 품으며 그 생명을 자라게 하고

혼신의 힘으로 다 바쳐서 . . . 38)

위는 임명희가 바로 상호의존성과 상호관련성을 강조하는 유기체적 세계관을 가졌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임명희는 이런 세계관에 따라 관계적 자아<sup>39)</sup>를 지향한 인물로 변화하게 된 것이다. 이혼 후 임명희는 일제의 고문으로 만신창이가 된 여옥과 임명빈, 기타 지리산에 도피한 사람들을 돕는다. 이렇게 임명희는 ‘혼신의 힘으로’ 돌봄을 실천하는 ‘자아’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물론 그녀의 돌봄은 스스로 ‘대안적인 윤택한 생활’을 선택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부와 명예를 마다하고 이혼한 임명희의 삶이 <토지>에서 누가보아도 행복하게 서술되고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즉 임명희는 인공적인 것이 아닌, 자연 파괴적인 것이 아닌, 자연의 창조적 능력을 추구하는 여성주체로 회복되는 서사를 보여준다.

게다가 임명희가 창조의 능력을 열망하는 장소가 ‘통영’이라는 점도 주목된다. 조용하에 의한 “부부간 겁탈” 사건이 일어난 후, 임명희가 자살을 기도한 통영은 <토지>에서 “자유와 창조의 정신이 깃든 곳”, “통영의 판데목 그곳에 설치한 해저터널은 일본의 참패를 상징하는 곳”이었다. 이런 통영의 ‘해저터널’을 통과하는 인물이 <토지>에서 남녀를 통틀어 임명희가 유일하다. 이는 창조의 능력을 열망하는 임명희를 통해 조선이 결국 독립을 쟁취할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임명희는 일본 문화의 반생명성을 비판하고, 생태적 긍정성을 회복하는 식민지의 아내를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물론 이는 임명희 스스로 여성의 배경화를 탈피하고자 한 사건에서 비롯된 결과였다.

38) 『토지』 14권 101-102쪽.

39) “관계적 자아란 자신을 타 대상으로부터 독립된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 그물망 안에서 그 대상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 바로 이 관계적 자아를 깨닫는 것이 ‘생물중심평등’과 ‘자아실현’을 가져온다.” 신두호, 『남성과 에코페미니즘』, 『영미문학페미니즘』9, 한국영미문학페미니즘학회, 2001, 53쪽.

#### IV. 공동체적 치유와 식민지의 어머니

에코페미니즘은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대전제로 하는 패러다임의 변화”<sup>40)</sup> 보여준다. 그래서 “자연 속의 생명이 협력과 상호보살핌, 사랑을 통해 유지된다는 점을 인식”<sup>41)</sup>하는 여성이 나타나는 것이다. 물론 이는 “우리 모두에게는 치유가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공동체의 차원에서, 지구적인 차원에서 모두 다 치유가 필요합니다.”<sup>42)</sup>라는 의식 때문이다. 즉 “생명의 파괴가 아닌 생명의 창조를 인간의 진정한 임무로 인식해야 하며, 인간됨의 본질이 전세계 다양한 종들의 삶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보호하는 우리의 능력에 있음을 깨달아야”<sup>43)</sup>한다는 것이다. <토지>에서는 최서희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최서희를 통해 <토지>의 생태학적 특성을 살펴보려 한다.

강가 후미진 곳을 찾아 내려간다. 마직 양복을 벗고 속옷도 벗고 홍이는 물을 끼얹으며 물속으로 들어간다. 푸르고 맑은 섬진강 강물. 홍이는 몸을 씻으며 주감을 생각했다. 새타령의 가락을 생각했다. 나룻배가 내려왔다. 홍이 자맥질을 하며 강물 속으로 몸을 숨겼다. 다시 떠올라 목을 내밀었을 때 나룻배는 지나가고 있었다.

“시원하겠소!”

나룻배의 사공 목소리가 맑은 햇빛을 뚫고 울려왔다. 그리고 배는 하류를 향해 내려갔다. 맞은편은 전라도 땅, 강물에 기슭을 적신 가파로운 산에는 소목이 울창했다. 백로가 환상같이 흰 깃을 펴고 날아간다. 산기슭에 잠긴 물빛은 산그늘 때문인지 푸르고도 녹색이다.

‘여기가 바로 무릉도원이구나.’ (중략)

“여기가 바로 무릉도원이로구나!”

이번에는 목소리를 내어 말해본다. 그리고 이곳 이땅에서 씨앗이 하

40) 김임미, 앞의 논문, 16쪽.

41) 마리아 미스·반다나 시바, 앞의 책, 16쪽.

42) 김재희 엮음, 앞의 책, 30쪽.

43) 마리아 미스·반다나 시바, 앞의 책, 117쪽.

나 떨어져 자기 자신이 생겨난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는다.<sup>44)</sup>

조선농민인 홍이가 수영하고 있는 장면이 한 폭의 산수화처럼 아름답게 묘사되고 있다. 조용하고 아름다우며 깨끗한 강산에서 소나무, 백로, 홍이, 씨앗 하나가 같은 생명체로서 어우러진다. “무릉도원”인 것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런 평화로움이 <토지> 5부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5부는 식민지인(홍이)에겐 “불안과 공포” 때문에 “한줄기 빛도 보이지 않는 어둠만 있”다고 믿게 되어버린 일제말기이다. 물론 수영하고 있는 홍이의 현재 처지도 그가 살아온 날들 중 가장 두려운 때이다. 늘 간접적으로 독립운동에 가담하여 왔다가, 지금은 직접 독립운동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홍이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즉 <토지>는 ‘절망의 시간’에 ‘무릉도원’을 그린 것이다. 이는 뒤집어 생각하면 <토지>가 ‘생명체에 대한 믿음’을 간직한 작품임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왜냐하면 자연의 생명성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결코 나타나지 않았을 묘사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주목할 것은 <토지>가 최서희를 통해 이런 ‘희망’을 서사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토지>가 절망의 시간에 무릉도원을 그렸다는 것은, 생명 파괴의 시간에 생명의 생장을 복돋우는 따뜻한 어머니의 보살핌을 그린 것과 밀접히 관련하는 것이다.

최서희는 <토지>에서 조선 그 자체를 상징하는 생명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는 다음의 세 가지 점에서 알 수 있다. 첫째는 최서희가 어린 생명체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최서희는 5살 계집아이로 등장한다. “날개짓을 배우기 시작한 새새끼” 같았던 최서희는 9살이 되면서는 ‘작은 독수리, 작은 늑대, 어여쁜 꽃’으로 묘사된다. 어린 자연의 생명체로 최서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둘째는 최서희가 고아가 된다는 점이다. 최서희는 9살에 고아가 된다. 이는 식민지가 된 “조선도 고아임을 확인할밖에 없”(9권 28쪽)다는 점과 밀접히 관련된다. 생존관계에서 9살 아이는

44) 『토지』 18권 310-312쪽.



모든 권력을 빼앗긴 식민지의 위치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는 작가가 <토지>에서 “천지만물”이란 단어를 수없이 애용한다는 점이다. 천지만물이란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온갖 것은 모두 생명체로서 동등하다는 의식이다. ‘초목草木=금수禽獸=충류蟲類=인간人間’인 것이다. 그래서 ‘외톨박이가 되어 해매거나 병들거나 상처받아 힘이 약해진 ‘맹수’가 유독 사납듯이’ 고아가 된 최서희도 포악하고 음험하게 변하는 서사를 갖는 것이다. 따라서 최서희는 ‘조선, 그 자체의 생명’을 상징하는 여성이라 읽어도 무방할 것이다. 특히 최서희가 고아가 되면서 사납게 변화한다는 서사는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한 변화라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최서희는 아래와 같이 대사회적 모성을 실천하는 어머니로 변모하기 때문이다.

가) 조춘(早春)에서 봄 한가운데로 성큼 건너가려는 시기에는 바람과 바람이 실어오는 흙먼지와 그 흙먼지의 내음과, 그리고 내음은 바위 틈에서 마른 잔디를 비집고 혹은 담장 밑에서 돌아나는 연하고 보송보송 살찐 풀잎의 촉감을 환기시킨다. 대지의 힘찬 숨결은 양상한 나뭇가지로 뻗어올라가고 어미 짐승이 새끼 상처를 핏물 주듯이 풍설에 멎든 나무의 표피를 바람은 어루만진다. 얼음이 녹고 그늘을 드리운 강물은 정다운 어머니처럼 착한 아내처럼 산자락을 감싸 안으며 모질었던 겨울 얘기를 하면서 호느껴 우는가. 까치는 날개가 찢어지게 나뭇가지를 물어 나르며 등우리를 만들고 흙벽을 뜯어먹으면서도 아기는 자란다. 아아 그리고 가랑잎같이 매달려 겨울바람을 견디어낸 번데기는 지금 무서운 경련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sup>45)</sup>

나) 석이의 모친, 성환 할머니가 늙은 몸을 일으켰다.

“마님!” 부르며 서희에게 다가서려는 순간, 쏟아내던 자전거가 서희와 성환 할머니를 가르듯, 그러나 핸들을 휘 꺾는 바람에 성환 할머니가 길 위에 나뭇그리진다. 어떻게 보면 고의적으로 그런 것 같기도 했다. 자전거에서 내린 개동이 언성을 높여 말했다.

45) 『토지』 9권 217-218쪽.

“할일이 없이믄 집구석에서 낮잠이나 자지, 무신 청승 떠노라고 날마다 길거리에 나왔어 있소!”

적반하장, 도리어 입정 사납게 개동은 노인을 몰아세운다. 안자는 얼른 가방을 놓고 나똥그러진 성환 할머니를 안아 일으키고 있었다.

“국가 비상시국에 식량도 모자라는데 늙은 죽어야 하는 기라. 강아지맨크로 발질에 걸거적거려서 사람 부아 돌구기 딱 알맞구마는.” 하면서도 개동은 서희에게 결눈질을 하며 기색을 살핀다. 처음부터 시비를 걸자고 시작한 노릇, 두려워서 기색을 살핀 것은 물론 아니다.

“이놈!”

서릿발같이 매서운 서희 눈이 개동을 쏘아본다. (중략)

“할머니한테 빌어!”<sup>46)</sup>

최서희가 돌아온 고향에서 겪게 될 ‘어머니 역할’이 가)와 같이 ‘예고’된다. 여기서 ‘번데기’는 최서희를 의미한다. 평사리 집을 조준구에게서 사들인 최서희는 자신을 “나비가 날아가버린 번데기”로 느끼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중요한 점은 ‘무서운 경련’을 일으키고 있는 번데기에 최서희가 비유된다는 것이다. 이는 “몸부림이 치열할수록 생명의 위대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과 상통한다. 즉 최서희가 식민지에서 어머니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생명의 위대함을 보여주게 된다는 의미를 함축한다. 왜냐하면 식민지로 전락한 조선에서 생명체들이 겪는 고난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며, 이런 고난의 시간에 최서희가 식민지인에게 강렬한 희망이 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최서희는 ‘어미 짐승이 새끼 상처를 핥아 주듯이’, 조선의 ‘산자락을 감싸 안’듯이 식민지의 생명체들을 보살피는 대사회적 모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런 모습은 최서희가 협력과 상호보살핌, 사랑에 의해 결정하는 인물임을 나타낸다. 나)의 사건을 통해 이를 대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나)에서 패약을 부리는 우개동은 일제 앞잡이로서의 자부심이 가득한 인물이었다. 우개동의 “동생은 천황폐하를 위해 사지에 갔”고 “일본에 온갖

46) 『토지』 17권 320-321쪽.

충성을 다한” 우개동은 “징용에 사람 많이 뽑아낸” 것으로는 평사리에 서 으뜸이기에 자신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어도 큰소리를 칠 수 있었다. 피해자인 성환 할머니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일방적으로 퍼부을 수 있는 위치였던 것이다. 일제 말기의 조선인은 성환 할머니처럼 목불인견의 삶이었다. 그런데 이같이 적반하장의 상황을 바로 잡는 인물이 바로 최서희였다. 박효영 의사는 이런 최서희가 “강인하고 날카로운 가시가 밀생한” 탕자나무의 울타리 같다고 말한다. 즉 최서희는 모진 고통에 신음하는 식민지인들을 제국주의자들로부터 지켜내는 모성인 것이다.

사실 최서희도 개인적인 고난으로 힘겹다. “삭막한 그 거리, 붉은 담벽에 여름 태양이 튀고 걸레처럼 후줄근해진 사람들이 오가던”(12권 182쪽) 서대문 형무소에 남편 김길상이 갇혔기 때문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토지>는 김길상과의 면회를 하고 나오는 최서희를 “끝없이 펼쳐진 푸른 수전에 머문 흰 새 한 마리”로 묘사한다. 슬픔의 빗줄을 땀 ‘푸른 수전’에 여전히 깨끗함을 간직한 ‘흰 새’로 비유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비유는 최서희가 어떤 역경 속에서도 자연의 힘(저항과 투쟁)을 간직한 생명체임을 알게 해준다. 그래서 대사회적 모성을 지닌 최서희의 행동들은 “도탄에 빠진 이 나라 백성의 원”을 들어주는 “천수관음”을 닮기에 이르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토지>에서 최서희는 조선이라는 ‘공동체적 치유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여성이라 할 수 있겠다. 이 같은 최서희에게서 가장 주목할 점은 아래와 같이 그녀가 “조선의 문화, 그 우월의 꽃”으로 명명된다는 것이다.

서희가 자아내는 분위기에는 생래적(生來的)인 당당함, 그것이 구마가이를 위압했다. 당당함뿐이라. 발톱을 감춘 암호랑이 같은 영악함이, 언제 앞발을 들고 면상을 내리칠지 모른다는, 그것에는 다분히 선입견도 있었다. 분통이 터진다. 그러나 터뜨리지 못하게 서희의 말에는 잘못이 없었고 허식이나 수식이 없다. 허식도 수식도 없다는 것은 쾌짙하다. 일본서는 최상급에 속하는 여자를 내보였는데 눈썹 하나 까닥이지 않고

오히려 불쾌해하다니, 일본이 모욕을 당하였다. 조선사람 거반이, 친일 파만 빼면, 낫 놓고 기역자 모르는 무식꾼조차 일본을 모멸하고 비웃는 것은 다반사가 아니던가. 구마가이 정부는 그것을 모르는 바보인가. 바보가 아니다. 그들의 모멸이나 비웃음은 원성이요 약자의 자위다. 그러나 서희는 원성도 자위도 아닌, 조선의 문화, 그 우월의 꽃 속에 앉아 허식도 수식도 할 필요가 없는, 제 얼굴을 내밀고 있으니, 날카롭고 예민한 사내다. 얽은 그 입술이 상당히 깊게 넓게 느낀다.<sup>47)</sup>

최서희는 윤국과 환국을 ‘풍요로운 땅’에서 키우기 위해 조선으로 돌아와 있었다. 이는 최서희에겐 어렸을 때에도, 어머니가 된 이후에도 변함없이 생태계의 이상향으로 조선이 인식되고 있었음을 알게 해준다. 그런 최서희에게 구마가이 정부는 경고하기 위해 찾아왔었다. 하지만 노련한 구마가이 정부조차도 최서희 앞에서는 위와 같이 오히려 위축될 뿐이다. 식민지에서 어머니가 된 최서희의 존재가치는 이 한 장면으로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즉 최서희는 조선 산천에 대한 작가의 원형적 믿음을 반영한 인물인 동시에 조선 문화의 생태적 가치를 드러내는 생태적 여성인 것이다. 따라서 천수관음상을 닮은 최서희는 생명의 창조를 인간의 진정한 임무로 인식해야 한다는 작가의식이 반영된 식민지의 어머니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V. 나오며

한마디로 말해, 박경리 <토지>에 나타나는 생명주의는 ‘문화적 에코페미니즘’ 특성을 지닌 것이다. <토지>는 제국주의자가 일으킨 전쟁은 식민지의 여성·어린이·자연을 황폐화시켰음은 물론, 이런 억압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땅을 어머니로, 사람을 땅의 자손으로 보는 생태적

47) 『토지』 11권 134-135쪽.

상상력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특성을 <토지>는 자연과 문화를 이분하지 않는 조선여성들을 통해 그려내고 있다. 작가의 목소리를 그대로 대변한다는 유인실을 통해, <토지>의 생명관을 대표한다는 임명희를 통해, <토지> 서사의 핵심인물인 최서희를 통해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토지>의 생태학적 특성들은 하나로 수렴되어 중요한 의미를 형성하게 된다. 그 의미란 바로 <토지>가 ‘문화적 에코페미니즘의 비판’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이다. <토지>는 조선여성젠더와 관련하여 문화적 에코페미니즘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토지>의 생태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토지>는 제국주의 문화와 조선 문화를 생태학적 관점에서 평가한다는 점이다. <토지>는 자연과 문화를 이분하지 않는다. 단지 반자연적인 인성, 반자연적인 환경에 대한 비판을 드러낸다. 이는 식민지의 딸인 유인실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둘째, 자연의 배경화와 여성의 배경화가 상동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토지>는 이를 자연의 생명성을 회복하는 식민지의 아내를 통해 드러낸다. 임명희는 유기체적 세계관을 중심으로 관계적 자아를 회복하는 여성이 된 것이다. 셋째, 조선의 문화로 명명되는 식민지의 어머니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토지>는 생태적 이상향으로 조선이 그려져 있다. 이런 상상력은 조선 산천에 대한 작가의 원형적 믿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물론 이런 작가의식은 최서희가 공동체를 치유하는 대사회적 모성으로 서사화 되게 한다. 그 결과 <토지>는 폭력과 죽음으로 물든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조선여성들의 끈질긴 저항을 그려내고 있는 작품이 될 수 있었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박경리, 『가설을 위한 망상- 박경리 신원주통신』, 나남, 2007.  
\_\_\_\_\_, 『만리장성의 나라』, 동광출판사, 1990.  
\_\_\_\_\_, 『생명의 아픔』, 이룸, 2004.  
\_\_\_\_\_, 『토지』 전21권, 나남출판사, 2005.

### 2. 논문 및 단행본

- 강국희, 「박경리 『토지』의 여성인물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고갑희, 「에코페미니즘- 페미니즘의 생태학과 생태학의 페미니즘」, 『외국문학』43, 열음사, 1995, 96-118쪽.  
김명준, 「박경리의 『토지』 연구- '삼대담'의 갈등구조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김영민, 「박경리의 문학관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6, 한국문학연구학회, 1996, 203-221쪽.  
김윤식, 『박경리와 『토지』』, 강, 2009.  
김인숙, 「박경리 『토지』의 대화성 연구」, 연세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김임미, 「에코페미니즘의 논리와 문학적 상상력」,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김은경, 「박경리 문학 연구- '가치'의 문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_\_\_\_\_, 「박경리 문학에 나타난 지식인 여성상 고찰」, 『여성문학연구』20, 한국여성문학학회, 2008, 221-255쪽.  
김지은, 「박완서 소설의 에코페미니즘 특성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2013.

- 김재희 엮음, 『깨어나는 여신』, 정신세계사, 2000.
- 김현숙, 「박경리 문학의 생명사상」, 『한중인문과학연구』24, 중한인문과학연구회, 2008, 47-74쪽.
- \_\_\_\_\_, 「박경리 작품에 나타난 죽음과 생명의 관계」, 『현대소설연구』17, 한국현대소설학회, 2002, 309-329쪽.
- 김혜정, 「박경리 소설의 여성성 연구」, 충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 마리아 미스·반다나 시바, 손덕수·이난아 옮김, 『에코페미니즘』, 창비, 2008.
- 박혜원, 「박경리 『토지』의 인물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 신두호, 「남성과 에코페미니즘」, 『영미문학페미니즘』9, 한국영미문학페미니즘학회, 2001, 49-70쪽.
- 심원섭, 「박경리의 생명 사상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6, 한국문학연구학회, 1996, 299-327쪽.
- 오혜진, 「전근대와 근대의 교차적 여성상에 관해- 박경리의 『김약국의 딸들』 『시장과 전장』 『토지』를 중심으로」, 『국제어문』47, 국제어문학회, 2009, 323-352쪽.
- 이귀우, 「생태담론과 에코페미니즘」, 『새한영어영문학』43, 새한영어영문학학회, 2001, 39-51쪽.
- 이상진, 「자유와 생명의 공간, 『토지』의 지리산」, 『현대소설연구』37, 한국현대소설학회, 2008, 277-300쪽.
- 이소영·정정호·강규한·김경한 편역, 『자연, 여성, 환경- 에코페미니즘의 이론과 실제』, 한신문화사, 2000.
- 이소운, 「페미니즘 비평과 문학 교육」,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이승윤, 「박경리의 『토지』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 이운경, 『박경리, 박완서 소설의 여성 정체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이인복, 『박경리 문학 연구』, 『지역학논집』5, 숙명여자대학교 지역학연구소, 2001, 31-52쪽.
- 이태동, 『여성작가 소설에 나타난 여성성 탐구- 박경리, 박완서 그리고 오정희의 경우』, 『한국문학연구』19,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1997, 53-72쪽.
- 장미영, 『박경리 소설 연구- 갈등 양상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 조윤아, 『박경리 『토지』의 생명사상적 변모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 중앙일보 2008, 5, 24.
- 최유찬, 『『토지』를 읽는 방법』, 서정시학, 2008.
- \_\_\_\_\_ 외, 『『토지』의 문화지형학』, 소명출판, 2004.
- \_\_\_\_\_ 편저, 『박경리』, 새미, 1998.
- 최유희, 『박경리 『토지』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 최인숙, 『에코페미니즘의 철학적 배경과 노자철학의 상관관계 연구』,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홍순이, 『박경리의 『토지』 연구- 존재론적 생극론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Abstract>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ecological in  
Park Kyung-ri's <Toji>  
- Focusing on the cultural eco-feminism

Lee, Mi-hwa

Park Kyung-ri <Toji> is not two minutes nature and culture. Only half the natural toughness, and criticism about half the natural environment. Japanese imperialist culture because culture is destroying the lives of Carl criticism and culture of Korea has advocated because of life-oriented culture utilizing the power of creation. This eco-consciousness has become a driving force to draw the nature of the shipbuilding and women as active, independent from the land. It can also be seen from the nature of the land and women shipbuilding together with a narrative that celebrated the liberation. Such land shall focus on organic world view and oriented relational self, the boundaries of nature and women who work in the background screen. That is the life of the land is culturally attention eco-feminist characteristics. This article is in relation to gender roles in Korean women were studied for this purpose of life care.

Key Words : Park Kyung-ri, *Toji*, Eco-feminism, culture, organic world view, relationship self, ecological utopia.

■ 논문접수 : 2014년 11월 14일

■ 심사완료 : 2014년 12월 18일

■ 게재확정 : 2014년 12월 19일